

남성의 몸과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I)

-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

이 민 선 · 김 민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esthetic Images in Men's Bodies and Fashion(I)

- Focused on Eroticism in Men's Fashion-

Min-Sun Lee · Min-Ja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12. 21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eatures of eroticism expressed in men's fashion, to explain psychological and social contexts which engender eroticism and to analyze in what way eroticism is portrayed in men's fashion in this context.

Eroticism as the metonymy of forbidden sexual desire, has been embodied mostly in visual forms such as picture and photo.

From a psychoanalytic view, the context in which eroticism is formed can be explained by primary narcissism and fetishism. Primary narcissism is the feeling of satisfaction with the self in which the subject who is admiring and the object of admiration are one and the same. Accordingly, in order to give rise to eroticism, both subject and object have to exist. Fetishism, the metonymy of castrated penis, is also one of the factors to produce eroticism. Metaphorically seen as a woman who has a penis, a man who dresses in the same manner as a woman dresses can be a source of eroticism to gays.

From a sociological view, the context in which eroticism is fostered depends on the dynamic relations among social powers. In these relations, who is a subject or who is an object has been continuously changing. In the Post-modern culture appearing in the late 20th century, power begins to take various forms, and gays and women who had never been subjects begin to make man an object of eroticism. The other point is that social morality, ignoring desire itself, objectifies sexual desire and seeks to remove it by exchanging it for objectified symbols.

The design elements provoking eroticism in men's fashion are exposure and decoration. In particular, models in exposure and decorative fashion have been objectified through the methods of fragmentation

rather than showing the whole figure or removing a person's individuality or will, .

Key Words :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 노출, 장식, 불화
eroticism in men's fashion, exposure, decoration, objectification

I. 서론

인간의 복식은 성기의 은폐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앞을 가렸다는 무화과나무의 잎은 가장 간단하고도 원시적인 인간의 복장이었으며, 아마도 문명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소도구였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에는 일종의 반대 충동에 지배당하는 것이 있어 감추지 않으면 안될 부분을 동시에 강조한 듯한 복식상의 발명은 예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다.¹⁾

Freud²⁾는 절시증, 즉 시각에 의해 성적 쾌감을 얻는 것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성을 형성하는 '기본 본능들'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진행된 점진적인 육체의 감춤이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육체가 점점 더 옷으로 감싸여짐에 따라 옷을 벗기는 데 대한 관심도 커졌고, 또한 이때 필수적으로 벗겨져야 할 부수적인 물건들의 성적 성격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랫동안 계속된 청교도주의 시대 이후에 육체 및 성의 해방을 표방하면서 육체의 재발견이 행해졌으며, 오늘날에는 인간의 육체와 복식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에로티시즘적 이미지가 범람하고 있다.³⁾ 이제 아름다움과 에로티시즘은 불가분의 개념이며, 인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고 있다.⁴⁾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새로운 윤리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대상을 여성에 한정시켰던 경계가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보여지던 혹은 박물관에서, 해변가에서, 운동 경기 중에 보여지던 남성의 육체가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패션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는 에로티시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에로티시즘을 형성하게 한 심리적, 사회적 맥락

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 표현 양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에로티시즘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남성의 에로티시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심리적 맥락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셋째, 남성의 에로티시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회적 맥락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넷째,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의 조형 양식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가?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에로티시즘의 특성 및 형성 맥락은 인문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미술사학 문헌들을 위주로 고찰하며,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의 조형 양식 분석에 있어서는 복식사 문헌, 현대 패션 잡지 등에 실린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에로티시즘의 특성

인간은 출산과 같은 목적과 무관한 성적 욕망으로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는 이러한 욕망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죄악시하였으며, 따라서, 환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직립 생활 이후, 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왔다.

1. 성적 활동과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이란 대체 무엇인가? George Bataille⁶⁾ "단순한 성적 활동은 에로티시즘과는 다르다. 전자는 동물의 생활 가운데에 있는 것이어서 오직 인간의 생활만이 아마도 에로티시즘의 이름에 어울리는 악마적인 상을 나타내는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간단히 말해서 성적 활동이란 생물학적인

개념이며, 에로티시즘이란 심리학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⁷⁾ 악마적이라고 말을 사용한 것은, 에로티시즘은 모든 실용주의적인 활동(생식이나 아기에게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활동)에 대립하는 것이어서, 오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애욕에 있어서, 생식과 관계되지 않는 것을 모두 에로틱한 것일 수 있다.

성적 활동과 에로티시즘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성적 활동은 휴머니즘적 연대, 합리적 진보성, 성실, 안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에로티시즘은 나르시시즘적 고독, 우발성, 유희성, 도박성 등을 그 활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⁹⁾

예전에 에로티시즘은 종족의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자식을 출산하는 목적에 부합할 때에만 정당성을 부여받아왔다. 플라톤은 에로티시즘에서 목적과 무관한, 또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의 과시"였다.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연결되는, 미소녀를 사랑하는 남성들에게는 자식의 출산이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목적 의식이 결여된 에로틱한 욕망을 의혹의 대상이자 죄악으로 간주하는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살게 된 것이다.¹⁰⁾

2. 억압된 욕망의 환유적 표현

에로티시즘은 반드시 양성적이며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성적 집념은 흔히 도착적인 면 다시 말하면 변태적인 면을 내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심리에 잠재된 야성적이고 원시적인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실현하는 데에 저해가 되는 장애물을 스스로 만든다. 따라서 성적인 욕망의 표현에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게 직접적인 것을 지양하고, 상상적 요소들을 도입하게 된다. 심적, 혹은 육체적인 욕망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사람들은 상징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상징적 사고 방식은 인간이 발명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마술이어서 그것에 의해서 현실의 불가능성을 극복하고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와같이, 성행위 그 자체는 에로틱한 것이 아니며, 성행위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거나 암시하거나 또는 표현하는 것이 에로틱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에로티시즘이란 생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생식 행위와는 무관한,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기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¹²⁾

사람들은 실제적인 인물보다 오히려 사진이나 그림을 보다 강렬한 시선으로, 보다 자세하게 주시하는 것이다.¹³⁾ 에로틱한 욕망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3. 시각화

인간이 욕망을 느끼기 위한 가장 커다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눈의 작용인 시각인 것이다. 이처럼 시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직립 자세를 취함으로써 성기를 드러내보이게 되었다는 신화적 시나리오에서부터, 또는 직립함에 따라 후각이 쇠퇴하고, 시각이 발달하게 된다는 과학적 근거에 이르기까지 Freud는 계속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 그 중에서도 육체와의 관계에 있어, 성적으로 투사된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⁴⁾ 인간의 직립 이후 인간의 경우, 다른 감각 기관에 대해서 눈이 차지하는 지위는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의식적인 동물인 인간의 성적 자극은 주로 눈에 의해서 전달되게 되었다. 시각의 기능은 추상적이어서 특정된 부분에 집중될 수도 있고, 암시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에 호소하는 부분이 지극히 큰 것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에로틱한 세계는 시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¹⁵⁾

따라서, 현대 사회의 풍속이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시각의 작용, 이미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일 것이다. 보는 욕망, 눈의 에로틱은 이미 어느 정도, 현대 사회에서는 공인된 욕망으로 되어 있다.

Ⅲ. 정신분석학적 설명

Ⅱ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에로티시즘이란 인간에게 금지되어온 욕망에 대한 환유이며, 이는 주로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패션은 사회적 금기나 도박을 개입시킴으로써 그 이미지를 강렬하게 할 수 있다. 즉 표현에 있어서, 문화적인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에 그 반응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 과정은 금기 사항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¹⁶⁾ 소비자는 패션의 상징적 의미, 즉 대상물의 속성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받고, 자기의 억압된 욕구에 통로를 열어주는 수단으로 상품을 이용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리적인 충동으로서 감각에 의해서 지각되는 동시에 환상 속에 표현되며 오직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해서 흔히 그 존재가 노출되기 때문이다.¹⁷⁾ 에로티시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에로티시즘이 윈도우에 진열되는, 또는 광고 속에 등장하는,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 과시적으로 보여지는 패션의 중요 속성으로 범람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남성 패션에 표현된 에로티시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닌 본성 중 억압된 욕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1. 제 1차 나르시시즘

Freud는 나르시시즘을 두 가지로 분류, 정의했다. 하나는 어린 아이의 리비도가 전적으로 어린 아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기인 제 1차 나르시시즘과 리비도가 타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제 2차 나르시시즘이다. Freud가 구분한 두가지 나르시시즘은 유아들이 자신을 이상적 자아로 간주하는 원초적 나르시시즘과 리비도(libido)적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바깥 세상 속의 대상을 이상적 자아로 간주하는 제 2차 나르시시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¹⁸⁾

여기서 남성 패션에서의 에로티시즘을 설명해주는 나르시시즘은 바로 제 1차 나르시시즘이다. 제 1차 나르시시즘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마치 성적 대상으로 다루어서 성적 쾌감을 품고 이를 바라보며, 어루만지며, 애무하여 마침내는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하는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말이다.¹⁹⁾ 이는 자동 성 쾌락적인 나르시시즘이다.

자동 성 쾌락은 주체에서 타자의 존재를 모르는 단계에서 생겨난다. 즉 주체와 대상이 혼합됨으로 인해 주체가 그 자신의 육체의 일부를 노출증적인 객체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 성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 이드는 절시증²⁰⁾을 갖게 된다. 관음증과 노출증은 각각 보려는 충동인 절시증의 적극적, 수동적 형태들이다.

요컨대, 제 1차 나르시시즘이란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한 몸 안에 존재하는 자아에 대한 성적 쾌락에 대한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가 가졌던 이러한 감흥은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남성은 주체로 여성은 대상으로 규정됨으로써, 자아 속에서 실현할 수 없게 되고, 자아 밖에 존재하는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그리고 특히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이라는 이성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하게 된다.

2. 페티시즘

Fetish는 어머니가 상실한 남근의 대체물이다. 남근을 상실한 어머니에 대한 자각은 남자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동일화를 과격하고도 속죄적으로 거부하는 장면이며, 미분화의 꿈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나 규범적인 성욕이라는 이원적인 성의 세계로 진입할 것을 재촉한다.²¹⁾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완전한 성적 만족을 누렸던, 유아기에 가졌던 감흥을 버리지 못하고, 거세된 페니스에 대한 끝없는 환유적 표현이 에로티시즘을 형성한다는 정신분석학적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페니스를 상실한 어머니를 목격하고 공포에 질린 어린 소년이 어머니를 거부하고 여성적인 소년, '페니스를 지닌 여성'에게 타협적인 상을 찾게 되는 것은 동성애를 이루게한 동인 중 하나로 분석될 수 있다. 이와같이 페티시즘은 동성애와 관련되며, 남근을 가진 여성, 즉 여성적으로 치장한 남성은 동성연애자에게 에로틱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에 실패한 남성 즉 페니스를 가진

여성을 갖는 데 실패한 남성은, 남성이 아닌 물체에서 남근의 대체물을 찾는 주물승배자가 되며, 이렇게 획득된 대체물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IV. 사회학적 설명

에로티시즘이 시각적인 것이라는 특징은 바라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을 전제로 한다. 누가 주체가 되며, 누가 대상이 되는가는 사회적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금지된 욕망의 환유적 표현이라는 특징은 욕망의 물화(物化)를 의미한다.

1. 사회적 힘의 구조

개인은 욕망과 관련하여 능동태와 수동태, 여성과 남성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즉 인간은 대상을 객관화하거나 대상에 참여할 때 구경꾼과 관람의 대상, 관음자와 행위자 등으로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²²⁾

전통적으로 시각적인 욕망은 남성의 고유한 본능으로 인식되었다.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남성의 육체는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매스컴에서나 일상적인 영역에서 에로틱한 자극을 유발하는 남성은 오랫동안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여성의 성적 역할은 수동적이며, 여성은 먼저 자기를 능동적인 남자의 성적 욕망의 객체로서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post-modern) 문화 내에서는 권력이 탈중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보는 주체가 되지 못했던 여성이나 동성연애자들이 남성을 에로틱한 대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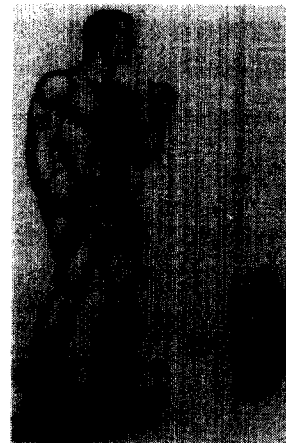
1) 이성애 남성

에로틱한 미술에 있어서, 감상자 혹은 소유자는 거의 남성이었고, 오브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 불평등한 관계는 우리 문화 속에서 상당히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부분의 여성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²³⁾ 성적 접촉에 대해 정반대의 서술어가 한 짝이 되어 쓰

이게 됨으로써-흔히 보게 되는 것처럼 한쪽은 능동적이고 다른 한쪽은 수동적이고, 한쪽은 지배적이고 다른 한쪽은 복종적인 것 등-상보적이고, 또한 보다 평등한 상호 관계를 모색한다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성의 힘과 그것의 효용성을 찬미한 나머지 여성에게는 부정적인 자아상만을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산업 혁명 이후, 남성은 인위적인 생산을 하게 된 반면에 여성은 자연적인 생산을 맡게 되면서, 벗은 몸은 야만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남성에 의해 제작된 남성 누드에서는 벗은 몸의 '야만적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하여,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는 '장식'들이 달려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남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물리적인 힘과 문화인으로서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용기와 덕, 이성과 정의, 그리스도적인 동정심, 승천(昇天)하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²⁴⁾ 혹은 수영 등의 스포츠를 하는 상황 속에 배치하여, 옷을 벗는 것이 목적있는 행동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관객에게 이들은 찬탄의 대상으로 그리고 정복하는 자로 군림하는데 그치는 것이다.²⁵⁾

이와같이 남성이 만든 남성의 누드는 어떠한 성적 환상도 제공하지 못하고, 지배자로 군림하고 말았다(그림 1). 그 이유는 남성 모델이 실제로는 성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못하고, 보는 이의 반응을 조정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림 1> 이성애 남성을 위한 남성의 몸(1999),
The Male Body(1999), p.99.

2) 동성애 남성

게이(gay)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참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까지도 일상적인 영역에서 남성의 멋진 육체를 감상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맨 처음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남성을 창조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동성애 디자이너나 사진사였다.²⁶⁾

가부장제는 지식과 권력의 토대가 되며 시선은 남근적이다. 그런 문화 안에서는 음경을 감추어야 한다. 음경을 전시하는 것은 남성이라는 주체를 구경의 대상으로 바꾸는 일로서, 왜곡 내지는 도착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Mapplethorpe가 제시한 시각의 문제는 주체와 객체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였다<그림 2>. 그의 작품들에서 남성의 몸은 가부장제에서 가장 신성한 대상에 따라야 할 크나큰 신비를 빼앗기고, 동성 연애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²⁷⁾



<그림 2> 동성애 남성을 위한 남성의 몸(1980), *Women's Images of Man*(1996), p.131.

20세기 후반 현재 게이 집단은 남성 패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역할을 과시하고 있는 많은 남성 디자이너들이 게이인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그들이 창조한 남성 패션은 그들이 추구하는 연인의 상이기 때문이다. 19세기 성(性)학자들이 동성애를 '타락'으로 정의할 때, 그들이 사용한 지식은 규제적이고, 통제적이고, 권력의 수행이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정의를 반항적인 정체성으로 전복시켰다. 게이들의 정체성-의복, 보석, 헤어스타일과 신체의 움직임으로 기호화된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3) 여성

시각 대상으로서의 육체는 남성의 육체와 여성의 육체가 모두 포함되지만 시각 그 자체는 전적으로 남성적인 특권이였다. 따라서 그 시각이 매혹당하는 대상은 여성의 육체에 국한된다. 이러한 문화적 모델은 그 당시 너무도 지배적인 것이어서 심지어는 여성 작가들까지도 이러한 시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²⁸⁾

그러나, 낭만주의 시대의 짧은 막간극 너머로 이제 다시금 에로티시즘이 결코 남성적인 삶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 여성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스스로 없이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은 전통이나 강압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사랑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려고 한다.²⁹⁾

이제 여성들도 동성연애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남성의 에로틱한 이미지들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남성의 에로틱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여성해방운동이 진행되면서 남성 모델의 얼굴은 부드럽고 중성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며, 어떠한 거부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모하였다. 잘빠진 몸매의 단단한 살은 상호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양성간에 어떠한 갈등이나 긴장,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고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그림 3>.



<그림 3> 여성을 위한 남성의 몸(1981) *Women's Images of Man*(1996), p.148.

2. 물화(物化)

에로티시즘은 욕망의 환유적 표현이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기호 속에 존재하며, 결코 욕망 자체

가 아니다. 패션 모델의 육체는 사물이며, 에로티시즘을 불러일으키는 기호의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⁰⁾

그런데, 욕망의 환유적 표현, 즉 욕망의 물화는 윤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그리고 제작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즉 욕망의 실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기호의 교환 과정에서 소멸시켜버려야 만이, 소비자는 자의식을 상처 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제작자는 물화를 통해 성을 경제적, 상업적 교환 가치, 드러내보이는 기호로서의 가치, 즉 교환 가치를 획득함으로써 윤리적 지탄을 피하게 되고 상품으로서 유통시킬 수 있다.

패션 모델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사물이며, 기호의 집합체이다. 에로티시즘이 기호 속에 있지 결코 욕망 속에 있지 않은 바와 같이, 패션 모델의 기능적 아름다움도 몸의 선에 있는 것이지 결코 표정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특히 무표정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추상성, 공허함, 황홀감의 부재 및 투명성 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수한 기호이다. 이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모델은 광고가 전달하는 무성(無性)의 기능적인 일련의 사물들과 동류적인 사물이 된다.³¹⁾ 이러한 무표정, 다시 말해서 의지의 제거야말로 모델을 물화(物化)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통적으로 물화된 이미지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질이라던가 인간임을 부정한다. 따라서 모델은 자연의 징표, 대상화된 인공물이 되어 관객들이 정신적으로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그 대상에 대한 상상을 마음껏 펼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인간이 마네킹, 인형이 됨으로써³²⁾, 윤리적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따라서 상품으로서 널리 유통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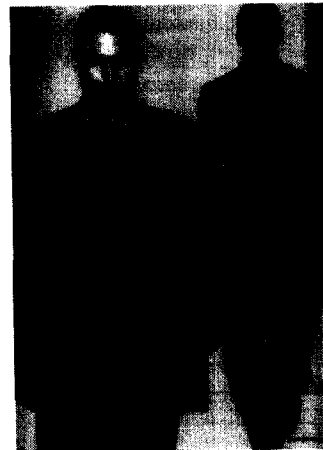
V. 남성 패션에 표현되는 에로티시즘의 조형 양식

남성 패션의 에로티시즘은 주로 남성 동성 연애자에 의해서 그리고 여성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다.

특히 게이 디자이너에 의해서 창조된 패션과 게이 사진가에 의해 창조된 남성의 에로틱한 이미지는 잡지라는 미디어를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³³⁾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는 남성 패션의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복식의 요소는 노출과 장식이며, 특히 노출적이거나 장식적인 패션을 착용한 모델을 인형으로서 물화(物化)시키는 작업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1. 노출

남성의 근육은 80년대에 성적인 매력의 중요 요소였다. Armani는 부드러운 소재로 신체와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의복을 유행시켰다.³⁴⁾ 그의 스타일은 부드러운 직물로 남성의 신체를 암시함으로써 인체의 노출을 통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의 형태들은 남성의 테일러드 수트, 셔츠를 기본으로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에 에로티시즘을 가미한 성공적인 형태이다(그림 4).



<그림 4>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 1.
(부드러운 소재를 통한 신체 선의 노출)
George Armani(1998), MODAIN, N.109, p.89.

Armani의 수트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직물을 통한 신체의 암시적 노출은 1920년대 Chanel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에는 Chanel에 의해서 니트 웨어가 여성복에서 패셔너블한 캐주얼 드레스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성복에서는

1차 대전 이후에 출현했으며, 이는 일탈로서 여겨졌다. 1960년대 남성복에서도 니트가 사용되었다.³⁵⁾

또한 스포츠 웨어에서 사용되는 스판덱스 소재는 보다 적극적인 노출을 시도하게 하였으며, 남성복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사이클링(cycling) 복식의 제 2의 피부처럼 몸에 꼭 끼면서도 동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재는 일상적인 남성복에 영향을 미쳤다.³⁶⁾

착용자는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음으로써, 알몸을 하고서 가슴팍에 현란한 메시지를 달고, 유유히 걸어 다니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느낀다.³⁷⁾ 이러한 패션은 더욱 과감해지면서 피부를 직접 노출하거나 혹은 속옷 자체가 패션이 되기도 하고, 속옷의 라인이 디자인에 응용되기도 한다.

속옷은 비밀스런 의복 아이템으로 항상 겉옷에 숨겨져 있고, 사적인 공간에서만 보여줄 수 있었다. 따라서 속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입은 것일 수도 벗은 것일 수도 있다.³⁸⁾ 1950년대에 비로서 오로지 위생의 목적으로만 입혀졌던 속옷이 실용적이면서 관능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1920년대 Cooper's Kenosha, Wisconsin이 스포츠맨을 위해 Y-front를 개발하면서 성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Cooper'의 시작은 80년대의 Calvin Klein에서 절정을 이루었고<그림 5>, Y.S.L도 속옷을 패션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 속옷들은 단지 착용자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그림 5>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 II. (속옷의 패션화)
Calvin Klein(1990년대), *DNR*, vol.29, no.57, p.121.

아니었다.³⁹⁾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남자의 속옷이 패션으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수영복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 수영복은 힘과 남성의 성적 매력의 새로운 특징들과 관련이 있었다. 속옷으로 스포츠 의복은 적절하게 보였다. 새로운 속옷은 그것의 에로틱한 함축성을 갖도록 고안되었다.⁴⁰⁾

남성 속옷은 더 이상 단순히 생식기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남성성과 성적 잠재성의 지표가 되고 있다. 남성 속옷은 남성의 성과 성적 쾌락의 현대적 개념과 함께 해왔다. 속옷은 성적 욕구의 단면으로서 남성의 몸은 격하시키기 보다는 관능적인 성의 특징들의 복합체로서 남성의 몸을 구체화했다.⁴¹⁾ 이제 속옷은 속옷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겉옷화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 III. (속옷의 겉옷화)
Helmut Lang(2000), *Arena*, March 2000, p.168.

남성의 힘은 남성의 유일한 곡선으로 에로틱 존(erotic zone)이다. 따라서 도덕가들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힘을 드러내는 15세기 유럽 타이트한 호스(tight hose)와 짧은 재킷(short jacket)이 비난받았으며, 20세기말에도 타이트한 진(tight Jeans)을 집퍼(Blouson)나 재킷과 착용하는 것은 동성애를 자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재 타이트한 진(tight jean)은 패션이 되었다<그림 7>.⁴²⁾



<그림 7>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 IV. (밀착에 의한 신체선의 노출)
Illustration by Tom of Finland(1965), The Man of Fashion(1997), p.10.

2. 장식

Silverman은 Lacan의 거울 단계에 관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신체상을 표현할 때 타인의 시선이 차지하는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성 주체는 여성 주체만큼이나 대타자의 시선에 의존하며, 그것을 갈망한다. 달리 말하자면, 남성 역시 근본적으로는 자기 과시적이라는 것이다.⁴³⁾

모던 정신 분석학에 의한 설명에 의하면, 남근을 가진 남자 아이는 아버지와의 동일시로 인해 거세 공포를 극복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벗어남으로써 나르시시즘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그러나, 남근을 갖지 못한 여자 아이는 거세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빠져 본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나르시시즘을 갖는다. 이러한 모던 정신분석학적 해석은 남녀 복식의 전통적인 성적 이미지를 고정 관념화하는데 기여하였다. Flügel⁴⁴⁾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나르시시즘은 그들의 복식으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장식적이고 유행난 여성복은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더욱 부추킨다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여성 복식과 남성 복식의 차이를 묘사하였다. 적어도 최근 몇 세기 동안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장식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여성이 자아도취적임을 강

조하기는 하나, 남성 역시 자아도취적임을 인정하고 있다.⁴⁵⁾ 이것은 남성이 유아기 때 갖았던 남근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을 치장하여, 타자의 시선을 끌고자 하며, 게이인 경우 연인을 장식적으로 치장함으로써 남근을 가진 어머니를 구현하고자 한다.

즉, 초자아에 의해 억압된 유아기의 원초적 나르시시즘은, 억압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나타나다는 리비도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도 환유적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며, 그 환유는 종종 패션의 형식을 빌어 나타난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이란 남녀 모두에게 가능한 동시에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데카당스(decadence)는 모든 세대에 표현되는 인간성의 근본 원리이다. 여성복보다 장식적이면서, 페티시스틱한 의복으로 털, 깃털 등은 주요 장식적 요소이다.⁴⁶⁾

이와같이 남성 복식에서의 페티시즘은 상상계에서 아이가 가졌던 남근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구현하는 것이다. 상상계에서 아이가 가졌던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강할 경우 여성 복식의 장식적 요소들을 착용함으로써 남근을 가진 완벽한 여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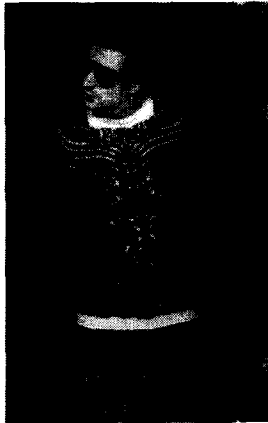


<그림 8> 장식에 의한 에로티시즘 I. (여성 복식 요소 도입)
Roberto Cavalli(2000), i-D, June 2000, p.117.

성도착증 환자의 복식 행동 꺾음으로 간주되었던 장식적인 패션은 Gaultier에 의해 <그림 9>⁴⁷⁾ 최근

보다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를 통하여, 매체와 대중문화에 다시 젊어진 피코크(peacock)들이 나타난 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옷의 선택과 입는 방식에 따라 증대되는 성적 매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남성 패션 관습의 변화는 남성성이 다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남성의 몸을 시선, 전시, 장식의 대상으로 바꾸었다.⁴⁸⁾



<그림 9> 장식에 의한 에로티시즘 II.
(여성적 복식 요소 도입)

Jean-Paul Gaultier(1998), *The Man of Fashion*(1997), p.128.

여성의 X실루엣을 모방하여 허리를 조이고, 엉덩이를 곡선을 강조한 스타일, 장식적이고 눈에 두드러지는 디테일, 가볍고, 부드럽고, 얇고, 바삭거리면서, 표면에 광택이 있거나 재질이 도드라져 장식적인 소재의 사용, 화장을 하고 섬세하게 다듬은 머리 등은 페티시즘을 통한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3. 물 화(物化)

노출과 장식이라는 패션 디자인의 요소를 다 갖추었다하더라도 이러한 복식을 착용한 남성으로부터 자의식이 상처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적 환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인간을 보여주기 보다는 조각으로 단편화하거나, 개성과 의지를 제거함으로써 남성 모델을 물화시켜야 한다.

남성을 물화하는 방법 중 얼굴을 제거를 통해 개성과 의지를 박탈함으로써 위압적인 남성성이라는

상징계의 코드를 없앴과 동시에 모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람자가 편안하게 성적 환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남성을 주제로 한 패션 사진이 신체의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상상계를 끌어내는 것에 비유되고 있다. 잘린 신체의 사진은 본능적인 성적 욕구의 측면으로서 더욱 에로틱하고 성적 자극을 부추키는 호소력을 갖는다<그림 10>.



<그림 10> 물화(物化)에 의한 에로티시즘 I. (단편화)
J.Lindeberg(2000), *Arena* March 2000, p.55.

남성을 물화하는 방법은 남성의 몸을 단편화시키는 방법 외에도, 모델의 시선을 관람자로부터 회피시키거나, 혹은 감춰 있는 몸<그림 11> 등으로 표하거나, 누워있거나 비껴 앉은 자세, 거울을 보는 나르시시즘적 자세 등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모델이 관람자의 반응을 조절할



<그림 11> 물화(物化)에 의한 에로티시즘 II.
(가둠으로써 의지를 제거하고자 함)

Marks & Spencer(2000), *Arena* March 2000, p.171.

수 있는 의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와같이 모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여, 물화함으로써 관람자는 윤리가 부과하는 죄의식을 회피할 수 있고, 따라서, 성적 환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인간의 금지된 성적 욕망에 대한 환유적 표현이며, 이러한 표현은 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왔다는 에로티시즘의 특징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금지된 성적 욕망에 대해 시각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유아기에 가졌던 원초적 나르시시즘과 페티시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원초적 나르시시즘이란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한 몸 안에 존재하는 자아에 대한 성적 쾌락에 대한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페티시즘은 거세된 페니스에 대한 끝없는 환유적 표현이 에로티시즘을 형성하게 한다. 남근을 가진 여성, 즉 여성적으로 치장한 남성은 동성연애자에게 에로틱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학적 입장에서, 에로티시즘의 주로 시각적으로 형성된다는 특징은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누가 주체가 되며, 누가 객체가 되는가하는 사회적 힘의 역학 관계에 의존함을 시사한다.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포스트모던(post-modern) 문화 내에서는 보는 주체가 되지 못했던 여성이나 동성연애자들이 남성을 에로틱한 대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회적 도덕은 욕망을 직접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환유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물화(物化)하여, 욕망의 실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며 기호의 교환 과정에서 소멸시키도록 한다.

에로티시즘을 유발하는 남성 패션의 디자인 요소는 노출과 장식이며, 특히 노출적이거나 장식적인 패션을 착용한 모델을 총체적인 인간을 보여주기 보다는 조각으로 단편화하거나, 개성과 의지를 제거함으로써 물화시킨다.

패션은 에로티시즘이 환유적인 시각화를 통해 표현된다는 특성 상, 일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가 되고 있다. 남성 패션에 표현되는 에로티시즘은 20세기 후반 권력의 탈중심화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 동성 연애자가 남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함으로써 비로서 실현되고 있다. 인간의 억압된 무의식에 호소하는 에로티시즘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소구점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남성 패션에서 에로티시즘의 표현 양식의 다양한 전개는 남성 패션 트렌드 형성의 중요 요소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미주

- 김덕자 (편), 『광고와 에로티시즘』, 서울: 미진사, 1995.
- 송윤하, 『에로티시즘』, 서울: 춘광, 1998.
- Baudrillard, Jean, La Societe de Consomation-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그린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1993.
- Bataille, Goerge, Eroticism, Dalwood, Mary (trans), London: Calder & Boyars, 1962.
- Berger, John, Ways of Seeing, 1972, 편집부 (역), 『이미지』, 서울: 동문선, 1999.
- Bordo, Susan, The Male Body, N.Y.: Farrar, Straus and Giroux, 1999.
- Brooks, Peter, Body Work, 1993, 이봉지, 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Craik, Jennifer, The Face of Fashion, London: Routeledge, 1994.
-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harh press, 1930.
- Freud, Sigmun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 Hollander, Anne, Sex and Sui, N.Y.: Alfred A.Knopf, 1994.
- Kent, Sarah & Moreau, Jacqueline, Women's Images of Man, 정소영(역),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 서울: 삼신각, 1996.
- Lischke, Gottfried & Tramitz, Angelika, Weltgeschichte der Erotik, Volume IV, 1995.
- 김이섭 (역), 『세계 풍속사 3 - 마릴린 먼로에서 마돈나까지』, 서울: 까치, 2000.
- McDowell, Colin, The Ma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a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 Pacteau, Francette, The Symptoms of beauty. London: Reaktion Books, 1994.
- Steel, Valerie, Fashion and Eroticism. Oxford:Oxford Univ. press, 1985.
- Wright, Elizabeth, 박찬부, 정정호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서울:한신문화사, 1997.
- Arena, March 2000.
- DNR, vol.29 no.57 Friday May 14, 1999.
- i-D, August 2000.
- MODAIN N.109.
- 1) 송윤하, 『에로티시즘』(서울: 춘광, 1998), p.18.
 - 2) Sigmund Freu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
 - 3) Jean Baudrillard, La Societe de Consomation-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그신화와 구조』(서울: 문예출판사, 1993), p.189.
 - 4) Ibid., p.195.
 - 5) Gottfried Lischke & Angelika Tramitz, Weltgeschichte der Erotik, Volume IV, 1995, 김이섭 (역), 『세계 풍속사 3 - 마틸린 면로에서 마돈나까지』(서울: 까치, 2000), p.229.
 - 6) George Bataille, Eroticism, Mary Dalwood (trans) (London: Calder & Boyars, 1962)
 - 7) 송윤하, Op.cit., p.26.
 - 8) Ibid., p.27
 - 9) 김덕자 편, 『광고와 에로티시즘』(서울: 미진사, 1995), p.61.
 - 10) Gottfried Lischke & Angelica Tramitz, Op.cit., p.330.
 - 11) 김덕자 편, Op.cit., p.71
 - 12) Ibid., p.60.
 - 13) Gottfried Lischke & Angelica Tramitz, Op.cit., p.313.
 - 14) Peter Brooks, Body Work(1993), 이봉지, 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p.200.
 - 15) 송윤하, Op.cit., p.34.
 - 16) John Berger, Ways of Seeing (1972), 편집부 (역), 『이미지』(서울: 동문선, 1999), p.298.
 - 17) 김덕자 편, Op.cit., p.43.
 - 18) Elizabeth Wright, 박찬부, 정정호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서울:한신문화사, 1997), p.435.
 - 19) 김덕자 편, Op.cit., p.72.
 - 20) 시각에 의해서 성적 쾌감을 즐기는 것
 - 21) Elizabeth Wright, Op.cit., p.185.
 - 22) Peter Brooks, Op.cit., p.517.
 - 23) John Berger, Op.cit., p.111.
 - 24) Sarah Kent & Jacqueline Moreau, Women's Images of Man, 정소영(역), 『여성이 갖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서울: 삼신각, 1996), pp.141-3.
 - 25) Ibid., pp.120-6.
 - 26) Gottfried Lischke & Angelika Tramitz, Op.cit., p.229.
 - 27) Peter Brooks, Op.cit., p.511
 - 28) Ibid., p.179.
 - 29) Gottfried Lischke & Angelika Tramitz, Op.cit., p.331.
 - 30) Jean Baudrillard, Op.cit., pp.198-200.
 - 31) Ibid., p.200.
 - 32) Sarah Kent & Jacqueline Morreau, Op.cit., p.116.
 - 33) Susan Bordo, The Male Body (N.Y.: Farrar, Straus and Giroux, 1999), p.179.
 - 34) Colin McDowell, The Man of Fashion: Peacock Males and Perfect Gentleman (London: Thames and Hudson, 1997), p.194.
 - 35) Ibid., p.132.
 - 36) Ibid., p.123
 - 37) Anne Hollander, Sex and Suit (N.Y.: Alfred A.Knopf, 1994), p.230.
 - 38)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London: Routledge, 1994), p.119.
 - 39) Colin McDowell, Op.cit., p.14.
 - 40) Jennifer Craik, Op.cit., p.149.
 - 41) Ibid., p.152.
 - 42) Colin McDowell(1997), Op.cit., p.10.
 - 43) Francette Pacteau, The Symptoms of beauty (London: Reaktion Books, 1994), p.182.
 - 44) J.C.Flu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The hoharh press, 1930), p.213.
 - 45) Valerie Steel, Valerie Steel, Fashion and Eroticism (Oxford:Oxford Univ. press, 1985), p.29.
 - 46) Colin McDowell, Op.cit., p.188.
 - 47) Ibid., p.184.
 - 48) Jennifer Craik, Op.cit., p.203.